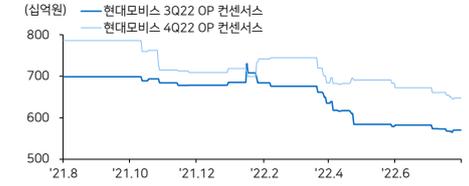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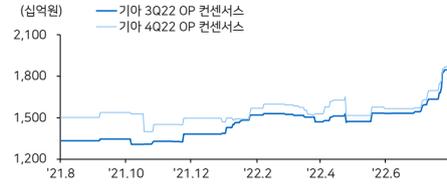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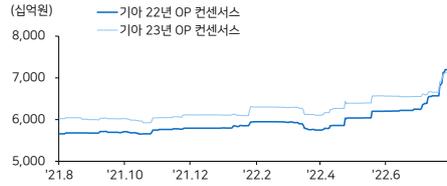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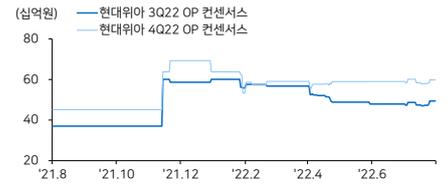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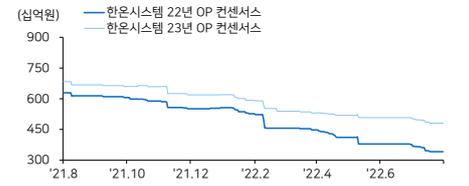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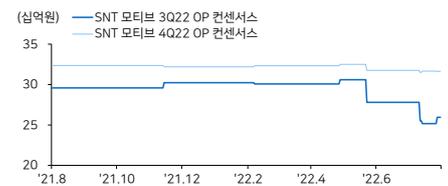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자동차도 '구독 경제' 시대...고객 반응은 아직 '글썸' (부산일보)

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TA'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 구독서비스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남. 그러나 소비자들 입장에선 최근 차값과 유가 인상에 또다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반감이 적지 않다는 의견. <https://bit.ly/3QgGqWu>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27대 독일에 공급...두번째 유럽 수출 (연합뉴스)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27대를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의 물류·제조 등 7개 회사에 공급에서 358대로 두 배 이상 증가. 또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 49억 유로, EBITDA 가이던스를 17~17.3억 유로로 상향. <https://bit.ly/3bu6C8v>

Ferrari lifts 2022 forecasts after strong Q2 results, record orders (Reuters)

페라리는 2022 yoy 15% 증가한 4.46억 유로의 EBITA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 출하량은 약 29%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358대로 두 배 이상 증가. 또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 49억 유로, EBITDA 가이던스를 17~17.3억 유로로 상향. <https://reut.rs/3bwJ6h>

BYD continues global expansion, announcing EV deliveries coming to Germany and Sweden in Q4 (electrek)

BYD는 일본 시장 진출을 발표한 지 불과 10일 만에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승용차 판매 계획을 발표. 유럽 딜러 기업 Hedin Mobility를 통해 올해 말 이전 EU지역에서의 EV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https://bit.ly/3JrxRNQ>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후판대 늘어도 출고지연은 여전히 (연합뉴스)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7월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은 유지되는 중. 생산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기 수요로 인해 출고 지연 현상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 <https://bit.ly/3oPmlN>

혹연 부족 압박,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마비될 수 있다 경고 (THE GURU)

벤지마크미네랄은 리튬이온배터리에 사용되는 고급흑연 수요 확대로 작년 9월 530달리/t에서 올해 6월 825달리/t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향후 다운스트림 수요 상승 가속화로 2025년 1,000달리/t을 넘을 것으로 전망. <https://bit.ly/3Jr5v6e>

Toyota unit falsified emissions data from at least 2003, probe finds (Reuters)

토요타의 주요 계열사 HINO자동차가 적어도 2003년부터 일부 차량의 배기가스와 연비 데이터를 위조했다고 밝혀짐. 토요일 기준 HINO자동차의 지분 50.1%를 소유하고 있으며, HINO자동차의 주가는 화요일 약 1% 하락. <https://reut.rs/3Qe20UJ>

XPeng builds largest self-driving computing center in China (CNEV Post)

XPeng은 중국 최대 자율주행 모델 훈련을 위한 컴퓨팅센터를 내용공에 설립, Alibaba Cloud 기반으로 성능은 600PFlops. Alibaba는 XPeng의 코어 모델 훈련 속도를 170배 향상했으며 향후 센터 완공 시 훈련이 더 빨라질 전망. <https://bit.ly/3BAGVxR>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